

# 영원히 떠나지 않을 풍요로운 인생의 향기

## 여름철 폭염에 과일 익듯 여우는 이열치열의 책읽기

나해철

시인

땀방울이 이슬방울보다 순수하고 눈물방울보다 더 감동을 줄 때가 있다. 땀방울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이 계절, 땀을 이슬보다 맑고 눈물보다 더 귀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 하기에 달렸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흘리는 땀은 이슬보다 맑고 고결하다. 그때 그런 사람의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있는 땀방울을 보게되면 혼한 눈물을 보았을 때보다도 더 우리 마음은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대중의 마음에 가장 잘 호소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만든다는 TV 광고에 그토록 많이 땀방울 가득한 인물을 등장시키는 것이리라.

언젠가 시를 쓰는 한 후배가 나의 진료실에 땀방울 가득한 채로 찾아왔다. 그리고 바지를 아래로 내려, 젖은 엉덩이를 내보였다. 엉덩이 가득 붉은 꽃모양으로 피부병이 피어 있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너무 오랫동안 땀에 젖은 채로 있게 되면 잘 나타나게 되는 몸피부곰팡이병이었다. 그렇지만 그 정도가 아주 심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을 설명해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여름 내내 책상에 앉아서 땀을 흘리며 시집원고를 쓰고 다듬었다는 것이다. 엉덩이에 곰팡이피부병꽃이 만발하도록 앉아서 온몸을 흐르는 땀에 개의치 않고 작업을 한 그 시인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며 나는 그 맑은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오는 느낌을 받았었다.

오랜만에 만났으므로 이것저것 근황을 묻게 되었는데 결혼할 애인도 생겼다는 것이다. 도대체 원래부터 가진 돈이 없는데다 아직 직장도 없어서 경제적인 능력도 시원찮은 젊은 시인을 사랑하여 그 고생이 눈앞에 훤히 보이는 결혼생활을 할 여인이 나타나다니 참 기쁘면서도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었다. 온 여름동안을 책상에 앉아서 엉덩이에 축축한 곰팡이가 필 정도로 자기일에 몰두하는 사람의 이마와 옆얼굴에 맺히는 땀방울을 보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여인이 그 누구 있겠는가.

기필코 사랑을 받아야만 된다면 올 여름에는 그 사람 보는 앞에서 땀흘려 자기 일을 해보도록 하자. 이마와 콧등에 송글송글

땀방울을 맺힌 채 한 번 부를 때는 대답도 하지 말고 자기 일을 하도록 하자. 그러면 반드시 바라던 사랑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리고 앞서의 시인이 결혼예물로 한 권의 시집을 펴내고 예식을 올린 것처럼 열심히 일한 그 결실과 더불어 행복해지리라.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더워서,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어서 쉬어야만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책을 읽으면 좋을 것이다. 자기 일을 땀흘리며 하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책을 읽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책을 읽는 것이야말로 여름을 현명하게 이겨내는 방법이다.

여름 한철 그 중에서도 하계휴가를 보내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그냥 드러누워 쉬거나 잠을 자거나 TV나 비디오를 보는 것이 있다. 우리가 계절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쉬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귀한 한여름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나 사랑을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나 참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여름의 치열함에 겨서 무기력해졌다는 느낌을 스스로나 바라보는 사람이나 모두 같이 느끼게 된다. 여름의 강렬한 도전에 대해서 너무나도 나약하고 수동적인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아시다시피 영국의 역사가였던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유명한 저서인 「역사의 연구」에서 문명의 발달은 그 문명에 던져진 도전에 대한 적절한 응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문명뿐이 아니라 개인의 발전이나 성장도 역시 끊임없이 일어나는 도전에 대한 응전에 의해서 결정지워진다고 생각한다. 도전 즉 크고 작은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더욱 노력함으로써 훌륭한 대응을 하였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보람있게 되어 스스로에게도 자랑스럽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름철의 폭염 속에서 과일들은 더욱 알차지고 알곡식들도 더욱 충실하게 여물어진다. 아마도 이것은 대자연의 일반적인 현상일 것이다. 자연의 일부인 우리 인간들도 이 점에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여름의 뜨거움에 지지않고 무엇인가를 하였을 때 그 결실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충실할 것이다. 이를테면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읽은 한 권의 책은 다른 어느 때 읽은 책보다도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고 또 그러므로 그 사람의 인생에 더 커다란 영향을 주어 그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실제로 한여름을 독서로 보낸 사람들은 그

독서의 기억을 오랫동안 잊지 못한다. 여담이지만 이 글에 대한 원고청탁을 받고 집사람에게 여름과 책에 얽힌 이야기가 있으면 해보라고 했더니 바로 중학교시절의 한여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책을 읽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는 것이 아닌가. 모르긴 몰라도 그 고집스럽고 열심히 집사람의 성격도 중학시절 폭염 속에서 땀 흘리며 읽었다는 그 소설의 여주인공 스칼렛 오히라를 닮아서일 것이다. 그러므로 책을 읽되 좋은 책을 읽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

한여름을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 책을 읽는데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 한다면 추리소설이나 무협물같은 책을 읽는 데는 반대다. 역설적으로 오히려 다른 계절이면 몰라도 오래 기억에 남고 평생 영향을 받을 귀한 여름철독서를 그런 스쳐지나가는 듯한 책들로 때운다는 것은 많은 손해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아예 단편소설 같은 것도 택하지 말고 장편고전소설이나 평소에 꼭 읽어보고 싶었던 분야의 전문서적을 하나 택해서 읽는 것이 여름을 참담게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이다. 물론 시원한 바다나 산으로 피서를 가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후에 추억만을 남겨주기 쉽지만 고전을 읽는 것은 추억과 더불어 평생 떠나지 않는 풍요로운 인생의 향기도 남겨준다.